

8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활성화된 사회사, 신문화사, 미시사, 페미니즘 등의 새로운 시각과 접근방법들은 비단 역사학뿐만 아니라 국문학, 사회학, 인류학 등 인접분야의 역사연구들을 자극하고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단턴의 작업은 특히 방법론적 차원에서 새로운 역사학의 시사적인 특징들을 보여준다. 그것들은 각각 문제들의 변화에 따른 사료범위와 종류의 확장, 구성주의적 시각에서의 총체적인 사료비판, 밀도 있는 해석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다양한 서사양식의 실험 등으로 요약된다.

<책과 혁명>을 비롯해 <고양이 대학살>, <앙시앙 레짐기 지하 문학> 등 단턴의 작업이 국내 커뮤니케이션사 연구에 새로운 역사학이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공식사료와 시각자료, 구술자료 등을 광범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사료의 확장은 서구에서 그랬듯 국내 커뮤니케이션사 연구에서도 문제들의 변화와 더불어 점차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역사연구자들이 미디어 제도, 송신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미디어 수용자, 문화, 효과 등에도 점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좀 더 다양한 사료의 생산과 이용을 낳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시각자료와 구술자료의 적극적인 수집, 활용은 커뮤니케이션사의 영역 확장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념, 통계범주, 비공식사료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하고 자기성찰적인 비판을 수행하여야 한다. 새로운 역사학의 구성주의적 관점은 사료의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분석도구의 역사성에 대한 철저한 주의를 요구하며, 이는 역사를 보는 시각의 전환이나 새로운 연구대상의 구축으로 진전될 수도 있다. 셋째, 사료의 상징적 요소들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추구하는 동시에 과잉해석의 위험성 또한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특히 미디어 문화사가 단순한 소재주의나 과도한 이론편향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원칙인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서술방식에 있어 역사가와 독자 간 대화적 성격을 강조하는 새로운 실험과 대안적 시도들이 요청된다. 최근 활발히 나오고 있는 국내의 문화사 연구성과들에서도 그저 ‘대중적인 글쓰기’가 아닌, 진정으로 역사인식과 서술방식 상의 혁신을 보여주는 ‘대안적인 글쓰기’는 아직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역사담론의 새로운 조직방식이나 독자와의 새로운 대화양식의 추구는 커뮤니케이션사의 발전과 다양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단턴은 ‘고양이 대학살’ 사건을 회고조로 기술한 18세기 프랑스의 인쇄공 니콜라 콩타의 텍스트를 두껍게 기술하면서, 노동자인 인쇄공과 부르주아인 주인 사이의 계급갈등이 고양이를 둘러싼 두 문화 간 차이 위에서 어떻게 굴절되어 나타났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해석 작업은 물론 사료비판과도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사료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적절한 해석전략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단턴이 <고양이 대학살>에서 이용한 주 사료는 18세기 프랑스의 니콜라 콩타라는 인쇄공이 남긴 필사본이다. 즉 우리는 고양이 대학살 사건에 관해서, 그 사건의 주모자 가운데 한 사람인 콩타가 사건이 몇 년 지난 뒤 썼던 자료에 의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문제는 그 인물의 실존성, 그리고 텍스트 세부 내용 가운데 많은 것들이 다른 자료들을 통해 확인된 이후에도 역사가는 모든 일이 콩타가 묘사한 대로 일어났다고는 결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단턴에 따르면, 그 텍스트 안에는 정형화된 요소들이 있다. 즉 그것은 넓게는 노동계급 자서전의 장르에 속하면서도,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익살스럽게 통탄하는 ‘미제르(misère)’ 장르, 그리고 인쇄공들 사이의 생활요령과 처세술 장르로부터 나온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턴은

그 텍스트를 통해 실제로 일어난 일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르포문학이 될 수 없게 만드는 바로 그 요소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해석 또한 그러한 전략에 종속된다. 즉 “이야기를 표준적인 방식으로 자리매기고, 관습적인 이미지들에 의존하고, 진부한 연상들을 뒤섞으면서, 작가는 의미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이해시킬 수 있다. 그는 자세히 열거하는 방식에 의해 자기 이야기 속에 의미를 구축한다. 그리고 그 방식이 평범할수록 그 의미도 덜 특이해진다. 만일 그가 지나치게 신비로운 스타일을 채택한다면, 그는 이해받지 못할 것이다. 이해는 공통된 의미체계에 의존하며, 의미는 사회적으로 공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콩타의 텍스트를 사건의 행위자, 내용, 장소, 시간을 모두 확실히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사건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기 위해 읽을 수 있다. 잠정적인 해석을 가지고 작업하고 나서, 우리는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 다른 자료들 - 현대의 속담선집, 민속, 자서전, 인쇄 매뉴얼, '미제르'-에로 나아갈 수 있다. 이야기와 그것을 둘러싼 자료 사이를 왕복운동하면서, 우리는 의미의 사회적 차원을 묘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주제와 관점, 형식의 역사가 다양한 방법론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역사서술의 역사를 고려해보면, 일반화된 역사연구방법론의 처방이란 아마도 역사의 일반법칙을 정립하려는 시도만큼이나 무모하면서도 비생산적인 욕망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사 연구가 그 나름의 제도적, 사회적 조건과 역사 속에서 지금의 연구관심과 문제영역을 발전시켜왔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또 중요하다. 단적인 예로, 그 누구도 언론사에서의 정치중심적, 민족주의적 시각을 단순히 랑케식 역사학의 그림자로서만 치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국내 사회사, 문화사, 민중사 연구의 문제의식이나 주제, 방법론을 순전히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나 현지가공품인양 취급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커뮤니케이션사에는 한국사회의 고유한 역사로부터 나온 문제의식이 배어있으며, 이 역사성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 없이 정당한 평가와 전망은 불가능하다. 이 모든 전제를 인정하면서도 다만 외부로부터의 지적 자극에 대한 주체적 수용이 내부의 학문적 담론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는 여전히 남는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사 연구를 자극,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학제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최근 역사사회학적 접근이 보여주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역사화’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단탄의 작업을 비롯해 새로운 역사학이 보여준 문제들과 연구대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 또한 의미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방법론 차원의 논의에 더해, 새로운 이론과 접근의 모색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노력은 학제적인 성격을 띠 수도, 외국 이론에 대한 비판적 수용의 형식을 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데 대한 커뮤니케이션사 연구자들의 절실한 인식과 공감대일 것이다.